

2011. 10. 6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G20 국제회의 「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, 그리고 G20의 역할」

G20 Conference on
Enhancing Global Governance
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G20

- 일 시: 2011년 10월 6일(목) 09:00~17:30
- 장 소: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1.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

[크리스티앙 마셋 프랑스 외무부 대외협력부문 차관보]

- G20 프랑스 회의에서는 불균형, 외환보유고의 축적,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, 체계적 위험 및 위험 이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.
- 개별 국가 차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함.

-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절치 못한 측면을 갖는 현재의 다자간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며, G20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적절한 대안 마련을 추구하고 있음.
 - 이러한 과정에서 이슈 해결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금조달 (financing)의 문제는 매우 중요
 -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녹색 성장 이슈를 G20에서 추구하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.
-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당위성과 G20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함.
- 첫째, shadow banking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개선하고, 불확실성의 수위를 낮추며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.
 - 둘째, IMF재원을 활용해 글로벌 안전망을 제고하고, 은행들의 안전성을 살펴야함.
 - 셋째,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고되어야 함.

[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]

- 유럽 위기와 미국 경제발전의 정체로 장기적인 경제 개발 의제의 우선 순위가 낮아진 측면이 있으나, G20는 거시경제 조율, 국제 금융기구 개혁, 무역자유화 문제, 개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.

- 거시경제 조율 문제에 있어 강력하고,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G20의 행동이 요구됨.
 -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외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으며, G7국가들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.
 - 거시경제 조율문제에 있어서 G7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- 선진국 국가들의 피평가 약속과 이행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됨.
 -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정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, 투명한 프로세스가 확보가 되어야 함.
 - 구체적이지 못한 액션 플랜은 불필요하며,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고려되어야 함.

- 유럽위기와 맞물려 위기에 직면한 국가 간 경제 공조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은 EFSF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, EC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,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.
 - 유럽 지도자들은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세계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세계 각국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함.
 - IMF의 지원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, IMF를 통한 지원은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, 이와 같은 상호 공조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글로벌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.

- 특히 국가 간 공조 체계에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, 중국 인도의 경제 성장률,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.
- 환경, 기후 문제에 있어서 신흥국들의 주된 역할이 기대되지만 이행 가능성은 의문
- 국제 통화시스템 개혁을 위해 IMF는 다수 국가의 통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통화바스켓을 확대하고, 인위적인 SDR을 창출해야 할 것임.

[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]

- 중개시장으로서 미국은행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통화 간 불균형이 일어났음.
 - 은행의 미국 달러 자산이 다른 통화 자산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함.
 - 금번 금융위기 발발 전에는 미국 외 은행들의 달러 자산이 미국의 상업은행의 달러자산 보유액을 상회했음.
 - 유로지역 은행들의 달러 자산 및 부채액도 상당했으나, net position만 반영되기 때문에 경상수지에는 나타나지 않음.

- 유럽의 은행들은 바젤2 규제와 EU Capital Adequacy Directive를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산을 확대했고, 유로존의 도래로 은행 간 역내 거래가 팽창했음.
 - 유로존 은행의 자국통화 대외대출이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, 이 때 서브프라임도 문제도 부각됨.
 - 또한 스페인과 아일랜드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는 등 유로존 내에서의 불균형 역시 존재함.
 - 현재 유럽의 위기는 은행의 위기와 국가채무위기가 공존하는 쌍둥이 위기이며,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때, 미국의 shadow banking system과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.

- 글로벌 가버넌스는 금융 규제와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지며, G20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됨.
 - 유럽에서는 현재 자국의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긴장을 가져옴.
 - 글로벌 경제는 금융안정성에 보다 주목해야하며, 선진국 통화정책의 전염효과(spillover effect)를 고려해 통화정책 시행 시 대외적 요건을 고려해야함.

[장위안 중국 사회과학원 부설 세계경제연구소장]

- 향후 G20의 주요 도전 과제는 기존의 위기관리기구에서 체계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성장해야한다는 것임.
 - G20은 모호하고 일시적인 하나의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책임 공조가 어려운 메커니즘상의 딜레마를 갖고 있으며, IMF 같은 기존 국제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
- 신흥국가들의 논의 참여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내부적인 분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임.
- UN의 대부분 국가들은 G20의 멤버가 아니므로 의사결정 과정자체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따라 포용성과 효과적인 운영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- G20가 기존 국제기구의 권한을 뺏어오고 있다는 시각과 기존의 국제기구를 대체한다기 보다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.
- 더 나은 G20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,
 - 첫째, 글로벌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협력적인 매커니즘을 확보해야 함.
 - 둘째, 포용성을 높여 G20의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.
 - 셋째, 상호 이득,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함.
 - 넷째,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확대함으로써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 역시 공정하게 공유해야 함.

- 다섯째,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함.
- 여섯째, UN의 식량, 농업, 환경과 같은 중요 아젠다의 대표, 시민사회 등과의 다자 간 공조관계를 확립해야 함.